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7

피난 생활 보고 57-유랑하는 세계 (1)

히메지(姫路), 하마마츠(浜松)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일요일아침에 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결혼식장을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인 당일에 하마마츠(浜松)를 출발해도 예배 전에는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우리들은 8 월이나 9 월이면 교회가 완성될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신청 허가로 시간이 걸리고 또한 구입한 토지에서 매장물 출토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10 월에 완성될 예정이 더 늦어져 지금은 아무쪼록 12 월 크리스마스 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주 “멋진 교회가 생겼네요”라는 말을 듣고는 저 자신도 놀라는 일이 때때로 있습니다. 아마 현재 2 시간에 3 만엔을 지불하고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결혼식장을, 홈페이지등에서 본 분들이 그 곳을 아마 새 교회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400 년전의 토기등이 출토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굴 작업등이 시작되어 몇달 아니 몇년이나 공사가 미루어 진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희망과 불안, 계획과 걱정이 교차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겠는지요? 저희들은 그 때까지 버틸 수 있겠는지요?

(7 월 1 일 일요일)

지금 저는 김포 공항을 향해 한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러브 소나타 집회를 일본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일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하용조’ 목사님의 유언에 의해 ‘유랑의 교회’가 한국어로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신 경위도 있고, 후임으로 오신 이재훈 주임목사님의 청하심을 받아 이렇게 방한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아주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온 세계 분들로 부터 받은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겠는지요.

이제 머지않아 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 후 바로 오늘 저녁 본당에서 열리는 수요일 집회에 참석할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번 방한을 통해 어떤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조금은 두근두근거리고 저도모르게 울렁이며 이 모든 것이 지진 재해를

만났기에 받게 되는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좋은 만남을 기대해봅니다.

(7 월 18 일 수요일)

8 일간의 서울 체류를 무사히 끝내고 저는 지금 귀로에 올랐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지만 제법 빡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동안 PC 앞에 앉을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내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도가 약 6 만명으로 일본의 교회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압도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3 월의 지진 재해 이후 그 소용돌이 속에 떠밀려 방황하던 제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마도 쇼크요법이나 전지(轉地) 요법이 되었는가 봅니다.

이번에는 특히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틈을 내어 38 도 선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판문점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선생님 가족도 60 년전에 발발한 6.25 전쟁 때 남으로 피난해 오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괴로우셨겠는지요.. 한국 방문은 이번이 8 번째가 됩니다만 이번 방문은 이상하게도 저희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은 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DMZ 라고 불리는 38 도 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비무장지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온세계에서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동식물의 귀중한 보고(寶庫)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도 출입금지로 되어있는 저희 고향도 원전사고로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1 년반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타조나 소, 돼지등이 완전히 야생화되어 뛰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고향도 뜻밖에 출현한 현대판 DMZ 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해도 보고 듣는 것 하나 하나가 마음이 걸려 어쩐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경계선에는 '망향'이라고 새겨진 석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겪은 사건의 후유증과 나이 탓으로 인한 것인지, 고향인 후쿠시마를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져, 한국에서 뜻하지 않게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분단의 비극이 저희 부부의 마음에 이렇토록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300 만명이나 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1000 만명이나 북에서 남으로 고향을 쫓겨나와 유랑한 것입니다. 동란 중에는 부모와 떨어져 고아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는 하겠지만 집과 고향을 잃은 점에서 공감을 하게 된 것이겠지요.

지금 일본에서도 후쿠시마현 사람은 현내에 약9만명, 현외에 약6만명으로 약15만명의 사람들이 집과 고향을 쫓겨나와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모두들 꼭 참으며 아주 잘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어딘가에 공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몸으로 체험한 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잊혀지지않습니다. 잊으려해도 잊을 수 없고,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어떤 교회의 부인이 작년의 지진 재해로 인한 원전사고 직후 대피소에서의 마음 아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녀도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애건을 자택에 매어놓고 왔다고 했습니다. 금방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녀는 애건을 즉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고향 입구에서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개들이 매여진 상태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지금 돌아가면 방사능에 썩어 당신이 죽을 지도 모릅니다”라며 결국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안타까웠던 마음은 잊으려고 한들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의 방한은 제게 있어서는 민족분단의 땅에 서서 처음으로 느낀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만남이 된 것 같습니다. 지진 재해후 묘하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직시할 때가 된 것이지요? 듣는다고 본다고 해도 바로 이해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후는 숫자나 영상으로도 전해지지 않는 지진 재해를 육성으로 전하고자 재결심했습니다.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족을 잃거나 전쟁체험을 하는등의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자주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아픔은 그 사람이 그 후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거나 상쇄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봉인되어있을 심층부의 상처가 또 다시 육신거리거나 flashback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의 여행길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자신은 없었다. 이러한 세계가 초래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래가 반드시 올겁니다. 또한 그 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없었을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드디어 겨울은 가고 봄이 돌아옵니다. 이 세계는 길고 긴 괴로운 시련 끝에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옛부터 가르쳐준 것은 아니겠는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 편 71 절)

(7 월 25 일 서울~나리타편)

피난 생활 보고 57-유랑하는 세계 (2)

추석 휴가도 거의 끝나갑니다. 저는 지금 왼편으로 비와고(琵琶湖)를 바라보며 JR 고세이선(湖西線)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의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쾌속열차는 종일 운행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역에 도착한 저는 서둘러 완행으로 바뀌어서 교토(京都)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 놓은 교토출발 도쿄행 신칸센과 도쿄역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에 늦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매일 조마조마 두근두근의 연속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열차시간의 연착원인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호우로 인한 것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대지진 재해 정도는 아니라해도 왠지 최근 들어서 이상자연 현상이 잦고 인간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날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지진 재해를 당해서 민감해진 것이지요? 아니면 최근에 자연이 황폐해지는 빈도가 일본이나 세계각지에서 빈번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보니 작년의 대지진 재해 전야인 3 월 10 일의 저녁놀이 여느 때와 달리 마치 서쪽 하늘을 녹일 것 같은 현상을 보게 된 저희부부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소개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사흘 전에 도호쿠 지방(東北地方) 상공에 이변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대기의 온도가 급상승하여 도호쿠 지방(東北地方) 전체의 한 물질이 그 넓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 오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있고 창조된 세계가 연동(連動)하여 그 날 만물은 꿈틀거리며 자연도 신음하고 있었는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 장 22 절).

화제를 바꿔, 저희집도 내일부터 여름방학 기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토끼같은 손자들이 일박이일로 올 예정입니다. 귀성이라해도 집도 고향도 없는, 현재 빌려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옵니다.

출입금지가 된 저 고향은 산과 바다 그리고 강까지 있는 자연에 둘러진 최고의 고향이었습니다. 손자들에게 '네 엄마는 이 토지에서 태어나 저 공원에서 놀며 저 학교를 다녔단다'라고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 서글퍼집니다. 이젠 손자들 기억 속에 직접 보며 체험으로 남겨줄 엄마의 고향이 없겠는지요?

아마도 손자가 초등학생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집에 와서 산으로 뛰어다니며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매미나 장수풍뎅이를 손에 올려놓거나 보릿짚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땀을 닦으며 수박을 먹고 있겠지요. 저희부부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점잖은 척하며 '너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라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겁니다.

아,,,이렇게 언제까지고 저는 잃어버린 미래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망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제가 글을 쓰-음하게 올리니까 혹시 내가 후쿠시마에서 우울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전처럼 지진 재해 보고일기를 바로 올릴 수 없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진 탓인지,, 지금에와서 피로를 느끼는 것인지요?

내일이야말로 달려오는 손자들을 맞이해 오래간만에 같이 뛰어놀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들의 넘치는 활력으로 충전해두고 저의 새로운 건강충전소로 써야겠습니다.

PS: 지난번 NHK 의 ETV 특집에서 빅토르·에밀·후렌크르(Viktor Emil Frankl)著 「밤과 안개」의 해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 집의 무너진 책더미 어딘가에 그 책이 파묻혀 있습니다.

후렌크르는 제 2 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에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로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 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인간 그리고 인생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하게 됩니다. 제 1 회 방영되었던 것은 그가 극한상태에서 본 기도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일견 힘이 무척 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속에서 생명의 강함을 발견합니다. 가혹한 상황에서 한결같이 자기 중심이 되어 가는 사람도 많이 보아왔지만 자신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상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인간에게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않는 자유가 있어서 그것은 나치도 다른 어느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생명의 원동력 된다는 것도.

확실히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최악으로 불행하지 않다면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역전의 발상도 극한 상황 때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유연한 사고방식에 이르는 하나의 희망이나 행복을 찾아내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도 자신의 마음속 컨트롤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 장 23 절)

(8 월 15 일)

이렇게 겨우 8 월 말인 오늘 다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 월 31 일 사토 아키라)